# 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소…늘어난 일자리 97% 고령층

## 통계청 '2023년 1월 고용동향' 발표
## 60세 이상 40만명 증가…97% 차지
## 제조업 취업자 15개월 만에 내림세
## 청년 취업자 2021년 2월 이후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하는 등 갈수록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1.5%) 늘었지만 증가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업자가 113만5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2021년 1월(-98만 2000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 1월에는 10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는 증가폭이 줄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9.3%),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10.2%), 정보통신업(7만2000명·7.7%)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은 1만6000명(2.1%)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1.8%), 운수 및 창고업(-5만1000명·-3.0%), 농림어업(-4만7000명·-3.8%)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5000명(-0.8%) 감소하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식료품 제조업, 전기 자동차에서 감소 영향이 있었다"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증가한 일자리 41만1000명 중 고령층 일자리가 97.3%나 차지했다. 50대에서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으나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이나 감소하며 3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크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7만5000명(3.8%)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1.2%), 일용근로자는 7만명(-6.5%) 감소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2021년 5월부터 21개월 연속 내림세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감소했다. 2019년 1월 이후 48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협회 및 단체, 예술 스포츠, 운송 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도 7만2000명(-8.3%) 줄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55만8000명으로 12만8000명(-0.6%)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6만8000명으로 47만명(8.2%)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p 오른 67.8%로 집계됐다. 이 또한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9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0.8%) 감소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6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4000명(3.3%)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전년보다 14만명 감소한 3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서 국장은 "2월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등이 있었고 일상 회복에 따른 긍정적 요인이 있다"면서 "지난해 기저효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이 커지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이슬 기자

# '부동산 침체' 직격탄에 가구업계 휘청…탈출구 찾을까

##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최악실적 기록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가구업계가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 주택매매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는 등 악재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해 2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한샘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2002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처음이다. 매출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2조1억원으로 나타났다. 순손실은 711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리바트도 암울한 실적이다. 현대리바트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85억원이었다. 2012년 현대백화점에 인수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조4957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441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신세계까사는 지난해 매출 2681억원, 영업손실 2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6.5% 상승했지만 영업손실액은 188억원 늘었다. 지난 2018년 신세계그룹 편입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거래량 감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가구와 인테리어 수요가 줄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한샘 관계자는 "(실적 부진은) 부동산 거래량 급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시장 상황 악화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까사는 "주택거래량 감소로 홈퍼니싱 시장이 위축됐다"며 "재고소진을 위한 할인 판매로 이익율 역시 감소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금리인상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해빙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금리 현상이 여전해 거래량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구업계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샘은 위기 극복의 승부수로 통합 플랫폼을 선택했다. 1분기(1~3월)에 인테리어·리모델링 전문 콘텐츠를 담은 정보탐색 채널이자 당사 인프라·노하우가 결합된 한샘몰·한샘닷컴 통합 플랫폼을 출시한다.

통합 플랫폼은 정보탐색부터 사후관리까지 리모델링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한샘은 전자계약서, 당사 제품 사용, 당사 직(直) 시공시 불편을 당사가 책임·해결하는 '무한책임 리모델링' 솔루션도 강화한다.

또 부엌, 거실, 욕실 등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심플패키지'와 같은 부분공사 상품을 강화하고 매트리스, 리클라이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자체 브랜드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리바트는 브랜드 고급화와 프리미엄 영업망 확대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올해도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과 프리미엄 영업망의 확대를 통해 리바트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현대리바트는 가구·매트리스 업체 지누스와 협업 시너지에도 힘쓴다. 현대리바트의 모든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상담부터 공간 컨설팅,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 '리바트 집테리어' 확장에도 집중한다.

신세계까사는 까사미아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디자인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채널 다각화도 이어간다. 신세계까사는 지난해 연말 SK매직과 협약을 맺고 렌탈용 가구 공급에 나섰다. 소파, 거실장, 침대 프레임 등 프리미엄 디자인 가구다. 렌탈 채널을 확보해 줄어든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재환 기자

# 전국 하나로마트서 한우 최대 5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업해 17~19일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980곳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1등급 등심의 경우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인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은 약 50% 할인된 100g당 2260원에 판매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50% 저렴한 수준이다.

또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한우 할인행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할인액의 20%를 한우자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설도·사태·우둔·앞다리 등 불고기와 국거리류 위주로 진행된다.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반값 수준으로 인하해 100g당 2160원 대에 판매할 예정이다.

'소프라이즈 2030 대한민국 한우세일'은 비수기인 2~3월, 6~7월, 10~12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협은 이번 할인행사가 끝난 후에도 하나로마트의 한우 고기 판매가격을 20% 낮게 유지할 계획이다. 수요 감소로 인한 한우 도매가격 급락을 억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몰 등의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직간접 유통비용을 포함한 소비자가격 구조상 도매가격이 하락한 비율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한우 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청약통장 해지 러시…7개월 연속 감소

수도권 대어급 사업장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속출할 정도로 분양시장이 침체기에 빠지자 한 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23만6647명으로 전달(2638만1295명)보다 14만4648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을 기록한 이후 7월(2701만9253명)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청약통장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청약통장 감소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매달 20만명 넘게 줄어든 데 비해 지난달에는 14만명 가량이 감소해 감소폭이 축소됐다.

청약통장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은 분양시장 침체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도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여러 단지가 수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지난해 12월 최초 분양 때 1330가구 중 40%에 달하는 537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아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청약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다 팔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분양에 나섰던 강동구 '더샵파크솔레이유', 강북구 '한화 포레나 미아', 강북구 '칸타빌 수유 팰리스' 등의 단지도 현재 잔여 가구가 남아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청약통장 없이도 돈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굳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청약통장 해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집값 상승기 때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청약=로또'로 여겨졌으나 최근엔 분양가가 오히려 집값 보다 더 비싼 사례까지 나오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에 대한 매력이 사라졌다.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재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063만원으로 전월 대비 3.86% 올랐다.

또한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1.8%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이자율인 연 4~5%에 비해 월등히 낮은 편이다. 고금리 상황에 이자율이 낮은 청약통장을 묵혀두는 것보다 빚을 갚거나 고금리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식은 가운데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저가점자들 중에서 일부가 청약통장을 깨고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통장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선옥 기자

# 불황에 경차 인기…사회초년생·주부 등 찾는 사람 늘었다

## 지난해 경차 판매 38.7% 늘어
## 3년만에 연 10만대 이상 판매
## 유지비 저렴, 세제 혜택 많아

경기 불황에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부담이 적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서다.

1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는 13만3294대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서 경차 판매가 연간 10만대를 넘어선 것은 3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국산 중고차 거래순위에서도 기아 모닝이 현대차 그랜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0~40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산 중고차로도 기아 모닝(2011년형)과 뉴 모닝(2010년형)이 꼽히기도 했다.

과거에도 경기와 경차 판매는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가 침체하면 경차 판매가 늘어나는 식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차는 15만6521대 판매됐다. 당시 국내서 팔린 자동차 4대 중 1대 이상이 경차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차 판매가 꾸준히 늘었다. 2012년에는 판매 대수 20만대를 넘기면서 경차 전성시대가 정점에 달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차는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중고차 유통사 모임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2월 중고차 시세에 따르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다른 차급과 달리 경차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불황기 경차 인기가 오르는 이유는 가격과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자녀 등·하원용으로 쓰려는 주부 등의 수요가 많다. 경차를 사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만원

의 유류세 환급 혜택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머스를 운영하는 ㈜핸들의 안인성 대표는 "1000만원 내외의 신차급 경차보다 여유 자금을 사기 좋은 500만원 미만 경차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입학과 취업철이 다가올수록 경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